



청소년들,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



오 선 희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 상담실이 개설 된지는 7년이 되었다. 당 상담실에서 그동안 30,000여건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는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다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같이 핵가족화 시대로 다변화 되어 가는 사회 구조 속에, 여유를 갖고 자신의 진로나 학업에 조언을 해 줄 사람은 없다. 같은 시기의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알팍한 지식과 호기심으로 현재의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 상담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로문제, 대학진학 또는 상급 학교 진학, 학과선택, 학업성적, 성적(性的) 갈등

및 호기심, 이성교제 등 매우 다양한 반면 부모님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의 학업문제, 자녀의 비행 및 가출, 약물남용, 등교거부 등이다.

최근에 당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부모상담으로는 자녀의 과외문제인데, 과목당 100만원 하는 과외가 있다는 것.

100만원 하는 과외를 해야만 학업성적이 상위권에 들 수 있는 것 처럼 너도 나도 착각 속에 빠져 선호하는 경향을 소위 8학군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얼마전 우리 상담실에 유난히 크게 전화벨이 울렸다. 필자는 업무의 한 부분인양, “청소년 상담실입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는 논리정면한 고음의 여자 목소리. 약간 격조높고 흥분된 목소리로 “선생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요! 글썄 우리 아이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3등급 밖에 안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핏 들으면 늘상 상담하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우등생이 되어라,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된다 등등 자녀에게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질 않아 푸념하는 듯이 들린다.

필자는 그동안 자녀의 공부과정에 관해 이야기 해 주길 바랬다. 여전히 자녀의 엄마는 흥분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아이가 하도 성적이 안 오르기에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고 한다.

아이가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냐고 상담을 했다 한다. 담임선생님의 말씀은“과목당 100만원 하는 과외를 시키세요”라는 말 뿐, 왜 성적이 안 오르는지, 공부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전혀 신경을 쓰려고 하시지도 않았다 고 한다. 이럴 수가...

그 아이는 국교때부터 압구정동 H아파트에서 생활했다 한다. 국교때는 반에서 1~2등, 중학교 때에는 평균 90점 이상, 고 1인 지금은 3등급으로, 고 1년에 3등급을 받으면 고 3년에는 아이가 들어갈 大學이 없다며 그 아이 엄마는 계속 푸념하고 있다.

얼마전 여름방학에는 단과 학원이다, 대학생에게 과외도 시켜 보았단다. 역시 학업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 아이는 엄마에게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관해 알고 싶어 하여 선생님과 대화 내용을 말하였더니 아이는 한 2달간만 과외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해야 할까요, 안하고 무시할까요.”라는 상담내용이다.

필자는 상당히 당황하였다. 어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 건가. 그 집의 생활 소득은 어느 정도 이길래, 우리 직장인들

오늘의 청소년은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일류대학에 진학해야만
출세하고 대우받는 오늘의
사회풍조가 청소년을
슬프게 한다.

의 2/3이상이 월소득 50만원 이하가 아닌
던가. 한달간 열심히 일한 댓가와 비유한
다면 과연 우리 근로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과외실시 해제로 S대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주식투자다, 부동산투기다 라
고 삼삼오고 짝을 지어 다니면서 한탕주의
시대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이런 일에 동
참 못하는 동기생에게는 팔불출 중의 하나
라고 수근덕 거린다.

이런 사고를 갖고 사회에 나와 노동의
신성함과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으
며 과연 21세기를 짊어질 사회의 대들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의 하루 일
과에 관해 물어 보았다. 아침 6시 기상, 등
교준비, 7시 등교, 18시 하교, 집에 돌아와
휴식, 저녁식사 후 적어도 20시에는 학습
을 하기 위해 몰입하여 24시 30분 정도에
하루 일과를 마친다. 이 아이의 하루 학습
시간은 4시간 30분이다. 이것을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한다.

가죽끼리 올 여름에 피서를 가자하여도

3박4일간 쉬다보면 다른 아이보다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성적이 얼마나 떨어
지는데... 라는 불안과 초초 때문에 피서도
마다하고 공부하였던 아이란다. 그 아이
엄마는 너무 속상하고 대책이 없어, 임기
응변식으로 강박으로 전학을 시키면 어떻
까요 라는 질문도 빠지지 않고 했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하였던 아이였다. 환경이
바뀌므로 그 아이에게는 더 큰 심적갈등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그곳에서 계속 공부하
는 것이 아이에게 효과적임을 판단하고 아
이에게 학습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여 아이가 학습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갖고 즐겁게 공부하도록 부모들은
도와야 한다.

또한 아이는 학교 수업내용을 완전 이해
하고 파악하기 위해 예습과 복습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관찰해 보도록 했다.

위에 간략하게 열거된 내용은 지금의 우
리 사회의 현실이다. 일류대학을 진학해야
만 출세하고 대우 받는 사회 풍조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자신
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항상 노력하는 인
간이 참 인간이요, 참 교육인 듯 싶다.

끝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들이 하
여야 할 역할은, 1. 최대한 부정적인 반응
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며, 2. 자녀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
인 격려를 아끼지 말 것, 3. 자녀와 같이
있는 시간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상담실>